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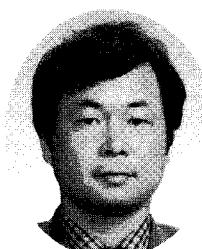


밀레니엄 論壇

‘농지면적의 감소’ 무엇을 의미하나?

도시화·공업화로 농경지전용률 심각한 실정
‘식량자급률’ 우려수준, 농지확대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김재홍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 나라의 농지면적은 1970년을 전후하여 2백30만ha를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1995년 2백만ha를 처음으로 하회하였으며 1998년에는 1백91만ha로 계속 감소 되어가고 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1970년까지만 해도 7ha가 넘었으나 1990년대에는 4ha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농지면적의 감소의 원인 및 농지면적 감소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농지법에서 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

고 있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온실, 버섯재배사 등을 말한다. 농지면적이 감소되었다 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보통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농지면적의 감소로 전체 농지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농지이용율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는 휴경농지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전체 농지면적의 감소

농지면적의 감소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시화·공업화에 의해 농경지의 전용은 어차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농경지의 전용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년 몇 백ha 정도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천ha 단위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만ha 이상의 농경지가 전용되고 있다(표 1). 농지가 전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주택건설과 함께 농어업용 시설의 건축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표 1. 농지전용 현황

(단위: ha)

연도	총면적	공공시설	주택시설	공업 및 댐	농어업용	기타
1975	515	145	47	13	35	275
1980	975	289	264	125	30	267
1985	2122	1327	296	200	50	249
1990	10593	4474	2229	2415	593	882
1995	16279	5252	2352	1675	4687	2313
1996	16611	5421	2787	1602	4282	2519
1997	15395	5862	2839	1920	2365	2409
1998	15141	9253	2080	1114	1566	1128

자료: 농림업주요통계, 1999, p.157.

농지이용율의 저하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이용율의

저하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농지이용율은 140%대를 유지했으나 1990년대에는 110% 정도이다. 이는 10%정도의 농지만이 두 번 경작된다는 것으로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이용도까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2. 농지 이용율(%)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이용율	147.1	142.1	140.4	125.8	120.4	113.3	108.1	110.1

자료: 상계서, p.22.

휴경농지의 증가

마지막으로 휴경농지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한 때는 전체농지의 3%를 상회하는 7만ha 가까운 농지가 유휴화되고 있었으나 한계농지의 활용과 IMF 이후 귀농자의 증가 등으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도 2~3만ha의 농지가 유휴되고 있다.

표 3. 휴경농지 현황

(단위: 천ha)

연도	경지			휴경지		
	논	밭	계	논(%)	밭(%)	계(%)
1985	1324.9	819.5	2144.4	4.1(0.3)	16.1(2.0)	20.2(0.9)
1990	1345.3	763.5	2108.8	12.3(1.9)	28.1(3.6)	40.4(1.9)
1991	1335.2	755.7	2090.9	24.0(1.8)	43.5(5.8)	67.5(3.2)
1992	1314.7	755.2	2069.9	31.0(2.3)	37.9(5.0)	68.9(3.3)
1993	1298.3	756.5	2054.8	30.3(2.3)	36.2(4.8)	66.5(3.2)
1994	1267.1	765.6	2032.7	31.4(2.4)	31.1(4.1)	62.5(3.0)
1995	1205.9	779.4	1985.3	33.5(2.6)	31.1(4.1)	64.6(3.2)
1996	1176.2	769.3	1945.5	14.5(1.2)	19.8(2.5)	34.3(1.7)
1997	1162.8	760.7	1923.5	10.3(0.9)	19.2(2.5)	29.5(1.5)
1998	1157.3	752.8	1910.1	6.2(0.5)	16.1(2.1)	22.3(1.2)

자료: 상계서, 각 연도.

식량자급률 30% 수준

이와 같은 농지면적의 감소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는 크게 증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겨우 30% 수준이다. 사료용을 제외 하더라도 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이러한 낮은 식량자급률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기후 이상과 낮은 식량재고량, 이에 따른 불안정한 곡물 시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표 4. 우리나라 식량자급도

연 도	전체양곡	사료용제외
1965	93.9	98.8
1970	80.5	86.2
1975	73.1	79.1
1980	56.0	69.6
1985	48.4	71.6
1990	43.1	70.3
1995	29.1	55.7
1998	31.7	58.5

자료: 상계서, 1999, p.264.

1995년과 1997년의 경우에는 1백억\$ 정도의 농림축산물을 수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무역적자액의 80%이상이 농림축산물에 의한 것이었다. 3백90억\$의 무역흑자를 실현한 1998년에도 농림축산물은 50억\$ 가까운 무역적자를 보았다. 농지면적 감소, 식량자급도 하락, 농림축산물 수입증가, 무역수지악화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의 확대와 함께 농지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지확대’ 포기 해선 학돼

농지면적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



명사칼럼

는 동시에 농지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농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간척사업은 환경의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지 확대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해

안선 또는 갯벌의 절대보존지역을 설정하여 특정해안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해안은 간척을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경지이용률을 높이고, 휴경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정책과 함께 적은 노동으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농지의 이용율이 낮고 휴경농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농가의 노동투입에 비해 산출되는 수익이 노동보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이 낮더라도 노동투입이 적을 경우 노동시간당 보수는 적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경지는 유휴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인이 경작하는 관광농원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한 농어촌휴양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모작으로 사료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놀리고 있어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1/3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2모작으로 사료를 생산할 경우 토양유실방지,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의정보**